

순창군,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집중관리

예산 낮추고 복지 효율 높이고

순창군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중인 환자 및 의료급여 고위험 과다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사례관리를 통해 의료비 절감은 물론 복지효율성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군은 지난해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및 고위험 과다이용자 300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약물 오남용, 중복투약 및 장기입원으로 지출되는 예산 3억 7천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제도에 의해 보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에게 약국,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제는 제도를 남용해 무분별한 병원진료와 약물과다 처방으로 인해 국가의 심각한 재정적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해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진료비는 2015년 대비 14%가 증가한 441만 7천원이며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할 경우 연간 진료비가 1인당 2,800만원에서 4,000만원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돼 국가 재정에도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급여 관리사를 활용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재정 절감을 시도해 효과를 보고 있다.

올해도 3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특히 최근 요양병원들의 무분별한 영업과 보호자의 요구로 인해 입원사유가 없는데도 장기 입원해 있는 환자에 대해서 집중 상담을 통해 퇴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퇴원 후에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재가서비스 안내, 시설입소, 및

반찬 서비스, 읍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연계 등 서비스를 지원해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집수리 연계, 밀반찬 서비스도 연계하는 세심한 조치도 취해나갈 계획이다.

군은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군민의 약물 오남용을 막고 건전한 의료급여 이용 환경을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치료가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 분들에게는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며 "다만 일부 수급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은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진료비 누수를 예방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에 중점을 뒀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팔도마당, 가락물 입점 업무협약 체결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의 청정한 명품 농특산물이 수도권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다.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전북도에서 도정의 핵심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 '제 값 받는 농업' 실현의 일환으로 농업회사법인 (주)팔도마당 (회장 주안자)과 21일 군청에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가락동 유통센터 내 가락물 운영 및 입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가락물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와 농업회사법인 (주)팔도마당이 함께 추진 중인 국내 최초 팔도지자체 특산물 홍보 판매관으로 지난 2015년 2월 가락시장에 지하 1층 지상 3층 초현대식으로 신축한 건물이다.

홍보특산물관 대한민국 최대의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공판장 시설지구 내 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일일 유동인구가 23만

명에 이르는 등 전국 농산물이 집중되는 곳으로 고창군 농특산물에 대한 수도권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지역 특산물인 복분자, 팥콩, 전일염 등의 가공품을 전시 판매할 계획이며, 또한 가락물에 입점하는 지자체의 입점품목은 온·오프라인 판매와 해외수출, 각종 야외 이벤트 행사, 공중과 방송홍보 등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박우정 군수는 "가락물 팔도 특산물 홍보 판매관 입점으로 청정하고 청의 명품 농특산물이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기쁘다"며 "고창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많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알려졌으면 물론 고창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소개하는 기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

3억원 투입... 연료비 절감효과

임실군이 올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마을단위 LPG소형 보급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사면 원산마을을 대상으로 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임실군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에너지 취약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각 가정에 지하배관을 연결하여 LPG를 공급하는 것이다.

사업대상자인 원산마을에는 총사업비 3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을 신청한 3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한국LPG배관공사에 위탁해 추진된다.

우선 설계 및 감리용역 기관을 선정해 3~4월에 걸쳐 설계를 실시하고, 5월~10월까지 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실시한다. 늦어도 올해 11월부터 가스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LPG 유통구조 축소로 LPG 용기로 개별 사용하던 것에 비해 30% 이상 연료비 절감이 가능해진다.

또한 안전성과 사용 편리성은 도시가스 수준으로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출산도 먼 곳 아닌 가까운 곳에서'

고창분만산부인과 큰 호응... 24시간 분만 가능 · 안전 출산 환경 조성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모들이 아기를 낳는 일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다. 임신을 할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산모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려면 산부인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전북 도내 분만 취약지 중 첫 번째로 분만산부인과 문을 열고 운영하고 있다.

의료법인 석천재단 고창종합병원에 분만산부인과 개원 후 지난해 9월 5일 첫 사내아이의 출음소리가 고창병원 분만산부인과에 울려 퍼졌다.

분만산부인과가 생기기 전 고창 지역 산모들은 인근의 정읍시나 전주시, 광주광역시 등 큰 도시의 병원으로 원정진료를 다녀야만 했고, 특히 야간시간에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는 더욱 큰 불편과 위험을 겪어야 했다.

고창종합병원이 24시간 분만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면서 이제 산모들의 원정출산 불편이 해소됐다.

실제로 최근 출산을 한 고창읍 김모씨의 경우 새벽 1시경 진통을 느껴 급히 고창 분만산부인과에 오게 됐고 병원에 도착한지 23분 만에 출산을 하게 되어 산모와 가족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고창지역에 분만산부인과가 없었다면 김모씨는 대도시 산부인과까지 이동하는 도중에 출산을 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과 산모와 아기가 자칫 위험해 질 수도 있었지만, 집과 가까운 곳에 군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만산부인과가 있어 안전하게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

군 관계자는 "최첨단의료기기를 갖추고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분만산부인과를 통해 산모들이 안전한 출산을 하고 여성들도 진료와 진찰을 받는데 불편함을 크게 덜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고창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의회, 임시회 개최

임실군의회(의장 문영두)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실무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22일까지 4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남근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실필봉굿마당 위탁운영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정당공천 폐지, 소선거구제 전환, 인사권 독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백두대간곤충교실 체험프로그램 운영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이달부터 오는 12월말까지 백두대간생태교육장전시관에서 백두대간곤충교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곤충을 활용한 체험교육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관찰력과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착안해 지난해 4월부터 곤충교실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2,000명 가까운 방문객이 체험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곤충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시관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유료로 운영된다.

체험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부담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체험비의 50%를 지원한다.

특히, 전시관에서 체험교육자료로 처음 쓰이는 코카서스(키튼)장수풍뎠이는 100mm 이상 되는 대형 크기로 시중에서 표본가격이 2만원 이상 되지만 곤충표본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여 양질의 곤충표본을 5천원 이내의 적은 비용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곤충교실은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으로 주 2회(토, 일 오후2시50분) 운영된다. 1회 참여 인원은 30명 이내이고 운영시간은 1시간~1시간30분 정도 소요된다.

이밖에도 전시관에서는 토퍼어리만들기, 자개거울만들기 등의 무료(현장접수) 체험도 운영되고 있으며 호남 최초의 씨클링영상관과 호랑이리이더관, 백두대간산설전시실, 곤충온실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모집

순창군은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2017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을 모집한다.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사업은 초·중·대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전북 인재들을 세계를 향한 글로벌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중학생은 6주 동안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과 중국어권으로 연수가 가능하며, 영어권은 60%, 중국어권은 8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영어권으로 해외 연수를 신청하는 초·중학생 5~6학년은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2015년 1월 이후의 토셀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셀 성적표가 없을 경우 반드시 오는 3월 25일 또는 4월 29일에 실시하는 토셀 특별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대학생은 개인별 연수프로그램에 의해 25~48주 동안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기타 언어권으로 연수가 가능하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 봄 축제에 몰들다!

신라사도부인행렬

춘향제 (5월)

지리산둘레길 (3~5월)

여행을 판다를 나와의 만남

철쭉제 (4~5월)

요천번 빛꽃 (4월)

요천자전거리 (5월)

순향남원 사랑의 편지 남원시